

## 아동 구타의 발생을 조사\*

### AN INCIDENCE SURVEY OF BATTERED CHILD IN THE TWO ELEMENTARY SCHOOLS OF SEOUL - A FOLLOW-UP STUDY IN 5 YEARS -

고 복 자\*\*

Bock-Ja Ko, M.D., Ph.D.\*\*

요 약 : 1986년 선행조사에서와 같은 학년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를 동일한 조사방법을 통해 1991년에 재조사하여 아동구타 발생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얻어졌던 결과들과 후속연구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5년 전에 비해 매맞는 아동의 수가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66.2%→96.4%).
- 2) 5년 전에 비해 심하게 구타당한 아동의 수, 즉 아동구타율은 거의 3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왔다.
- 3) 가정·사회·환경요인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5년 전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
- 4) 구타양상이나 구타아동의 정신증상 및 신체증상 역시 5년 전의 결과와 동일했다.

중심 단어 : 아동구타 발생율.

## 서 론

아동 구타는 아동학대중 신체적 학대에 속하며 (Mayhall & Norgard, 1983), 아동 학대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발생율이 높으며(남기민·전영자, 1990; Gil, 1970; Mrazek, 1985), 구타 자체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반복적인 구타로 인해 구타당한 아동이 정신·신체 장애, 정신 장애, 정신 증상, 행동 장애 등을 보이고, 이들이 자라서 폭력구사자나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점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 그 예방과 대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김광일, 1985; Gayford, 1975; Hilberman & Munson, 1978). 이렇듯 심각한 아동 구타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 구타의 현황을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아동 구타의 발생을 조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5년 오창규 등이 「Battered child syndrome의 1예」를 보고한 이후 아동 학대에 관한 연구들이 조금씩 발표되다가 1989년에는 12편이나 발표되는 등 1986년부터는 해마다 적어도 2~3편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 구타의 발생에 관한 인구학적 조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1986년 김광일과 고복자, 그리고 1987년 정혜영들의 연구 조사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구학적 조사로서 보다 정확한 발생율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구타당하는 아동들의 가정·사회·환경의 특징 등을 또한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 연구가 갖는 문제인 아동자신의 주관식 보고라는 점 그리고 서울 지역이 전국을

\*서울 학술연구장학재단지원에 의한 연구임

\*\*서울시립학교 건강관리소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chool Health Center Hospital

대표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점 등의 약점도 가지고 있다. 아동구타의 발생을 조사는 서울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국민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생 뿐 아니라 적어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들도 있어야 할 것이다. 1986년 저자등에 의해 행해진 아동 구타의 발생을 조사(김광일 고복자 1987)는 국내 최초로 1000명이상의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구타의 발생을 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Straus의 갈등 해결 방법 등급표에 따라 구타정도를 나누어서 외국 조사 자료들과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수준이 다른 두 집단을 임의로 정해 경제 수준이 아동 구타의 발생에 끼치는 영향 이외에 아동 구타의 가정·사회·문화요인들과 가정 폭력, 구타당한 아동들의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의 내용과 정도를 알아 볼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아동 구타의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 구타 집단의 전 단계일 수 있는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발생을 아동 구타의 발생율로 대신했다는 점 그리고 설문지 조사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제약점들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다.

이러한 미흡한 점들은 추후 계속 연구조사를 거듭하면서 보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조사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1986년에 실시된 선행조사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설문지로 동일한 조사 방법을 통해 1991년도 아동구타의 발생율을 조사하고 5년 전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그 변화 유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 조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의 강구에 보탬이 되기 바라며 또한 체계적인 아동구타의 발생을 조사 연구를 촉구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 조사 대상 및 방법

1986년 조사 연구시에는 서울 시내 공립국민학교 중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학교 가운데 한 학교, 그리고 빈곤한 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학교중에서 한 학교씩 하여 모두 두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Erikson(19

50)의 중반 아동기(7~11세)에 속하면서 설문 조사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3·4학년생을 택해 각 학년마다 5학년 모두 20학급의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1991년 연구에서도 같은 학교 3·4학년생을 택해 각 학년마다 5학급의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시기인 5월에 특별한 학교 행사가 없는 일시를 택해 각 학년 각 학급의 담임 교사 주도하에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객관식으로 작성되었는데, 가정·사회·환경요인을 알아보는 문항과 지난 일년간 가족에게 매맞은 일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매맞은 경우 그 정도와 회수와 부위와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때렸는가를 알아보는 문항, 아동 이외에 또 매맞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는 누구에게 맞는가 등 가정 폭력을 알아보는 문항등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번째 문항에서 매맞는 아동과 비행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3개 항목을 추가한 것외에는 1986년도 것과 같은 문항이었다. 설문지에 응답해 준 아동 1,048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1991년 9월 서울시 국민학교 3·4학년생 분포를 볼 때(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별, 학년별로 전체의 약 0.3%선에서 거의 균등해 서울시 국민학교 3·4학년생을 모집단으로 하는 대표치라 할 수 있었으며 남녀비는 1.1:1이었다.

## 조사 결과

1991년 조사 연구 결과를 먼저 정리하고 198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 1. 아동 구타의 발생율

1,048명 중 지난 일년 동안 가족에게 매맞은 일이 있는가에 대해 있다고 답한 아동은 1,010명으로 96.4%였고, 없다고 답한 아동은 38명으로 3.6%였다. 매맞은 아동 모두를 다 아동 구타 집단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맞은 정도(표 2참조)와 회수에 따라 의도적으로 다시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즉 지난 일년간 가족에게 한번도 매를 안 맞은 아동은 구타당하지 않은 집단으로 정하고, 한달 평균 1회 이상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이상의 심한 정도로 매를 맞은 경우 즉, Straus의

표 1. Sample size and population of the 3rd and 4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s in Seoul

Grade	Male	Female	Total
Total	97,387	89,480	186,867
3rd grade sample	269	248	517
%	0.28	0.28	0.28
Total	103,001	95,165	198,166
4th grade sample	274	256	530
%	0.27	0.27	0.27
Total	200,388	184,645	385,033
Total sample	543	505	1,048
%	0.27	0.27	0.27

표 2. The physical violence index of the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s scales by Straus(1974, 1978)

- K. Throwing, things
- L. Pushing, shoving, grabbing
- M. Slapping
- N. Kicking, biting, or hitting with the fist
- O. Hit or tried to hit with something
- P. Beat up
- Q. Threatened with a knife or gun
- R. Used a knife or gun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CRT)의 N 이상인 경우를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으로 정하고, 그 나머지에게 해당하는 약한 정도 즉, CRT의 M이하의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N이상으로 심한 정도라도 일년에 11회 이하로 매맞은 아동들은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으로 정했다.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을 아동 구타 집단에 준하는 집단으로 보았는데 1,048명 중 250명으로 23.9%였고,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은 760명으로 72.5%였다. 198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매맞은 아동의 빈도수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으며 심하게 구타당한 아동의 빈도수는 거의 3배 정도 증가되어 있었다(표 3).

2. 가정·사회·환경요인(표 4, 5)

가) 학교 A는 빈곤층 가정이 많은 지역의 학교이며 학교 B는 부유층 가정이 많은 지역의 학교이다. 학교 A에 다니는 아동들이 학교 B에 다니는 아동들보다 매맞는 경우가 더 많아, 부유층 가정의 자녀들보다 빈곤층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이 또 심하게 매맞고 있었으며 이것은 1986년 조사 결과와 동일하였다( $p < 0.001$ ).

나)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더 심하게 매맞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 < 0.001$ ), 1986년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다) 3학년 아이들이 4학년 아이들보다 더 심하게 매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1986년 조사 결과에서는 3학년 아이들이 4학년 아이들보다 다소 더 많은듯 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고 통계적 의

표 3. Incidence rate of the battered child during the last one year\*

Classification	Degree & frequency	Incidence	
		1986	1991
Severely battered	Severe degree** and more than once in a month	8.2%	23.9%
Intermediate	Mild degree*** regardless frequency, severe degree less than 11 episodes in a year	58.0%	72.5%
Unbattered	No experience of battering during last year	33.8%	3.6%

\*Total sample : 1,048(1991) 1,142(1986).

\*\*More than N by Straus'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

\*\*\*Less than N by Straus'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

표 4. Demographic data and residenti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everely battered (n=250)	Intermediate n=760)	Unbattered (n=38)	Total sample (n=1,0448)	Significance
1. School					
School A	57.6	44.2	34.2	47.0	p<.001
School B	42.4	55.8	65.8	53.0	
2. Sex					
Male	61.6	50.0	23.7	51.8	p<.001
Female	38.4	50.0	76.3	48.2	
3. Grade					
3rd	53.2	49.2	26.3	49.3	p<.01
4th	46.8	50.7	73.7	50.6	
4. Form of living house					
Apartment house	29.2	39.9	57.9	38.0	p<.001
Individual House	22.0	20.9	13.2	20.9	
House in store	6.4	2.5	2.6	3.4	
Tenement house	7.2	8.3	7.9	8.0	
5. House ownership					
Own	45.6	53.4	50.0	51.4	p<.05
Rent	37.2	27.2	23.7	29.5	
6. Number of room					
One	12.4	9.3	10.5	10.1	p<.05
Two	34.0	26.4	10.5	27.7	
Three	39.2	45.4	47.4	44.0	
Over four	14.4	18.2	28.9	17.7	

미도 없는 것으로 나왔었다.

라) 아파트 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단독 주택에 사는 아동이, 단독 주택에 사는 아동보다는 상가 지역에 사는 아동이 더 심하게 매맞는 것으로 나타나 1986년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p<0.001).

마) 자기 집에서 사는 아동보다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아동이 더 심하게 매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1986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었다 (p<0.001).

바) 온가족이 사용하는 방의 수가 3개 이상인 가정의 아동보다 방이 하나나 둘인 가정의 아동이 매맞는 경우가 많았고, 심하게 매맞는 경우도 더 많았다(p<0.05). 1986년 조사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왔다(p<0.001).

사) 조부모와 같이 사는 가족과 부모와만 사는 가족 사이에는 구타율의 차이가 없었는데 1986년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아) 가족수가 3명 이하이거나 6명 이상인 경우는 4명 내지 5명인 경우에 비해 매맞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1986년 조사에서는 가족수가 3명 이하이거나 6명 이상인 경우 심하게 매맞는 경우가 더 많아 가족수가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아동이 매맞게 되는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었다(p<0.001).

자) 조사 대상 아동의 97.3%가 친부모와 살고 있었는데 친모 계부, 친부 계모, 양부모 슬하에 있거나 부모가 없는 아동이 친부모나 편부·편모 슬하에 있는 아동보다 더 심하게 매맞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1986년

표 5.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everely battered (n=250)	Intermediate n=760)	Unbattered (n=38)	Total sample (n=1,0448)	Significance
1. Family					
With grandparent	18.0	17.0	13.2	17.1	n.s.
Without grandparent	82.0	83.0	86.8	82.9	
2. Family size					
Less then 3 persons	7.6	7.2	5.3	7.3	n.s.
4 to 5 persons	77.6	76.8	86.8	77.4	
Over 6 persons	14.8	15.9	7.9	15.4	
3. Parent status					
Both biological parent	96.4	97.8	94.7	97.3	n.s.
Biol. father & stepmother	0.8	0.5	0.0	0.6	
Bio. mother & stepfather	0.4	0.0	0.0	0.1	
Both step-parent	0.4	0.11	0.0	0.2	
Only father	0.8	0.7	2.6	0.8	
Only mother	0.4	0.8	2.6	0.8	
Both parent absent	0.8	0.1	0.0	0.3	
4. Employment status					
Both parents	37.2	32.0	31.6	33.2	n.s.
Father only	58.0	63.6	63.2	62.2	
Mother only	2.0	1.6	2.6	1.7	
Both unemployed	2.0	2.0	0.0	1.9	
5. Parent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Professional	18.4	20.0	28.9	19.9	n.s.
Unskilled worker	79.2	76.8	68.4	77.1	
6. Religion					
Christian	46.4	50.7	47.4	49.5	n.s.
Catholic	8.8	12.5	23.7	12.0	
Buddhistic	25.2	23.8	15.8	23.9	
Others	1.2	0.5	0.0	0.7	
No religion	18.4	12.5	13.2	13.9	

조사에서는 친모 계부, 친부 계모, 양부모, 편부 슬하에 있거나 부모가 없는 아동이 친부모나 편모 슬하에 있는 아동보다 더 심하게 매맞는 것으로 나타났었다(p<0.001).

차) 아버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는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가,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보다는 부모 모두 무직인 가정의 아동들이 더 매를 맞고 더 심하게 매를 맞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1986년 조사에서는 아버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는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가, 부모 모두 무직인 경우보다는 어머니만 직업이 있는

경우에 아동들이 더 매를 맞고 더 심하게 매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었다(p<0.001).

카) 부모의 직업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의사, 목사, 약사, 교사, 대학교수인 경우 구타당하지 않은 집단에 많았고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즉 노동인 경우에는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과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보다 더 심하게 매맞고 있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1986년 조사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있게 나

왔었다( $p < 0.001$ ).

타)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는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에 많았고 천주교인 경우 구타당하지 않은 집단에, 불교인 경우나 종교가 없는 경우 기타 종교인 경우에는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 다소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1986년 조사에서는 종교가 없거나 불교인 가정의 아동이 심하게 매 맞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p < 0.001$ ).

### 3. 구타 양상

#### 1) 구타자(표 6, 7)

구타자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은 어머니 이외의 타가족에게 매 맞는 경우가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 보다 많았다.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구타자가 3명 이상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아동 구타가 다발적인 가정 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1986년 조사 결과와 동일하였다.

#### 2) 구타 정도와 회수(표 6)

매 맞는 정도와 회수에 따라 집단을 인위적으로

표 6. Pattern of Battering(%)

Characteristics	Severely battered (n=250)	Intermediate n=760)	Total battered (n=1,010)	Significance
1. Perpetrator				
Father	73.6	53.9	58.8	$p < .001$
Mother	86.4	81.6	82.8	n.s.
Grandfather	4.0	1.8	2.4	n.s.
Grandmother	12.0	7.4	8.5	$p < .05$
Siblings	42.4	31.6	34.3	$p < .05$
Relatives or housemaid	11.2	3.0	5.0	$p < .001$
Surrogate or other person	5.6	1.2	2.3	$p < .001$
Total	235.2	180.5	194.1	
2. Number of perpetrator				
One	19.2	39.9	34.8	
Two	37.6	39.6	39.1	
Three	24.8	15.0	17.4	
Four	10.8	3.9	5.6	$p < .001$
Five	4.8	0.7	1.7	
Six	0.0	0.1	0.1	
Seven	0.4	0.1	0.2	
3. Severity of battering				
Kicking	10.4	3.6	5.2	$p < .001$
Hitting with fist	0.0	0.4	0.3	n.s.
Tried to hit with something	10.4	2.5	4.5	$p < .001$
Hit with something	24.0	7.5	11.6	$p < .001$
Beat up	52.0	11.4	21.5	$p < .001$
Threatened with a knife or weapon	2.0	0.4	0.8	$p < .05$
Used knife or weapon	1.2	0.1	0.4	$p < .05$
4. Frequency of battering				
One to three times for a month	42.0	15.5	22.1	
One to three times for a week	23.2	5.8	10.1	$p < .001$
Almost everyday	34.0	2.6	10.4	

나누었기 때문에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이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보다 더 심한 정도로 자주 매맞고 있었으며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도 심한 정도로 매맞은 아동은 25.9%(1986년에는 11.8%)였고, 한 달에 평균 1회 이상 매맞는 아동은 23.9%(1986년에는 28.7%)였다. 구타자가 사정없이 마구 두들겨 패했다는 경우가 구타당한 두 집단에서 공히 가장 높게 나왔는데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52.0%(1986년에는 47.9%)였고,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11.4%(1986년에는 3.5%)였다. 경하게 구타

당한 집단에서도 흉기가 될만한 물건으로 구타당한 경우가 760명 중 1명 있었으나(1986년에는 0명),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250명중 3명(1986년에는 94명 중 2명)으로 더 높게 나왔다.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한달에 1회 이상 매맞는 경우가 23.9%(1986년에는 28.7%)였고 거의 매일 매맞는 경우는 2.6%(1986년에는 5.1%)였으나, 심하게 구타당하는 집단에서는 거의 매일 매맞는 경우가 34.0%(1986년에는 39.4%)였다.

표 7. Physical injury related to battering(%)

Characteristics	Severely battered (n=250)	Intermediate n=760)	Total battered (n=1,010)	Significance
<b>1. Location of injury</b>				
Buttock	22.8	31.7	29.5	p<.05
Upper & lower extremities	48.4	56.7	54.7	n.s.
Chest & abdomen	9.2	2.1	3.9	p<.001
Face	10.4	6.4	7.4	p<.05
Head	12.0	5.4	7.0	p<.001
All of body	37.2	10.3	16.9	p<.001
Total	140.0	112.6	119.4	
<b>2. Number of location of injury</b>				
One	49.6	80.9	73.2	
Two	15.2	8.7	10.3	p<.001
Three	3.2	1.3	1.8	
Four	30.0	7.1	12.8	
<b>3. Result of injury</b>				
Bruise	82.0	66.0	70.6	p<.05
Scratched & biting wound	6.4	1.4	2.7	p<.001
Burn	0.8	0.5	0.6	n.s.
Wound of laceration	0.0	0.0	0.0	
Sprain of finger or other area of extremities	2.4	1.8	2.0	n.s.
Teeth knocked out	0.0	0.1	0.1	n.s.
Fell down with loss of consciousness	1.6	0.3	0.6	p<.05
Being crippled	0.0	0.0	0.0	
Total	93.2	70.9	76.6	
<b>4. Number of wound due to result of injury</b>				
One	80.4	68.2	71.2	
Two	10.0	2.6	4.5	p<.001
Three	2.4	0.3	0.8	
Four	0.4	0.0	0.1	

### 3) 구타 부위(표 7)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은 팔, 다리, 엉덩이, 온몸, 얼굴, 머리, 가슴이나 배의 순으로 매맞았으며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은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보다 온몸, 머리, 가슴이나 배, 얼굴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이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보다 두 군데 이상 여러 곳을 매맞는 경우가 더 많았다. 1986년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했었다.

### 4) 구타 결과(표 7)

매를 맞고 신체에 손상이 생긴 경우가 매맞는 아동의 76.6%(1986년에는 70.6%)였으며, 멍이 들었다는 아동이 70.6%(1986년에는 60.6%)로 제일 많았고, 할킨 상처나 긁힌 자리가 남았다는 경우가

2.7%(1986년에는 3.3%), 손가락, 팔, 혹은 다리를 빼였다는 경우가 2.0%(1986년에는 3.6%), 화상을 입은 경우가 0.6%(1986년에는 0.5%),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경우가 0.6%(1986년에는 0.3%), 그리고 치아가 부러진 경우가 0.1%(1986년에는 0.3%)였다. 1986년 조사에서는 살갓이 찢어졌다는 경우가 1.9%, 병신이 되었다는 경우도 0.1%로 나왔었다.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아동들이 구타로 인해 입은 손상의 정도가 더 심했으며, 손상의 가지 수도 두개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 1986년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 4. 구타 아동의 정신증상 및 신체증상 (표 8, 9)

표 8. Psychiatric problem & behavioral problem related to battering(%)

Characteristics	Severely battered (n=250)	Intermediate n=760	Unbattered (n=1,048)	Total battered (n=1,010)	Significance sample
1. Psychiatric & behavioral problem					
Don't like studying	46.0	32.4	15.8	35.0	p<.001
Don't like going to school	28.4	12.2	10.5	16.0	p<.001
Don't like going home	9.2	3.0	5.3	4.6	p<.001
Seized with fear of going home	14.4	3.7	2.6	6.2	p<.001
Don't want to live	20.4	6.8	10.5	10.2	p<.001
Unamusing	24.8	14.5	2.6	16.5	p<.001
Don't like making a friend	7.2	2.9	0.0	3.8	p<.005
Frequent quarreling with friend	20.8	10.9	2.6	13.0	p<.001
Smashing things because of pent-up anger	17.6	6.7	7.9	9.4	p<.001
Wanting to beat-up	46.0	28.2	10.5	31.8	p<.001
Telling a lie	36.4	26.3	7.9	28.1	p<.005
Stealing	2.0	0.8	2.6	1.1	n.s.
Total	273.2	148.4	78.8	175.7	
2. Number of psychiatric & behavioral problem					
None	23.6	48.0	76.3	43.2	
One	23.2	27.6	7.9	25.9	
Two	24.8	13.7	7.9	16.1	p<.001
Three	11.2	7.0	2.6	7.8	
Four	8.8	2.2	2.6	3.8	
Five	8.4	1.4	2.6	3.1	



표 9. Psychiatric symptom related to battering(%)

Characteristics	Severely battered (n=250)	Intermediate n=760)	Unbattered (n=38)	Total sample (n=1,048)	Significance
<b>1. Psychiatric symptom</b>					
Headache	33.6	28.4	26.3	29.6	n.s.
Abdominal pain	25.6	23.3	13.2	23.5	n.s.
Tingling sensation of extremities	21.2	10.9	7.9	13.3	p<.001
Short of breath	17.6	12.8	5.3	13.6	n.s.
Stuttering	11.2	6.2	0.0	7.2	p<.05
Frequent urination	16.8	8.7	7.9	10.6	p<.001
Bed wetting	4.8	1.8	0.0	2.5	p<.05
Difficulty to induce sleep	28.0	18.7	15.8	20.8	p<.05
Poor appetite	36.4	22.5	10.5	25.4	p<.001
Feel tired	27.6	23.0	15.8	23.9	n.s.
Unbalanced food intake	50.0	38.2	21.1	40.4	p<.01
Eat too much	13.6	12.5	7.9	12.6	n.s.
Dim & drowsy consciousness	12.4	8.4	10.5	9.4	n.s.
Total	298.8	215.4	142.2	232.8	
<b>2. Number of psychosomatic symptom</b>					
None	10.8	20.9	36.8	19.1	
One	18.4	22.9	26.3	21.9	
Two	20.4	19.7	5.3	19.4	p<.001
Three	13.6	15.9	18.4	15.5	
Four	13.2	9.1	5.3	9.9	
Five	23.6	11.4	7.9	14.2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 아동들은 공부하기 싫다(35.8%), 마구 때려주고 싶다(31.8%), 거짓말을 한다(28.1%), 즐겁지가 않다(16.5%), 학교 가기 싫다(16.0%)의 순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아동들이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정신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였으며 증상을 두개 이상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아동들이 공부하기 싫다(46.0% 1986년에는 23.4%), 친구와 사귀고 싶지 않다(7.2% 1986년에는 6.4%), 친구와 자주 싸운다(20.8% 1986년에는 11.7%)는 항목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집에 가기 싫고(9.2% 1986년에는 6.4%) 집에 가기 겁나서(14.4% 1986년에는 9.6%) 학교로 도피하나 학교에서의 적응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아동들이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살고 싶지 않다(20.4

% 1986년에는 16.0%), 즐겁지가 않다(24.8% 1986년에는 11.7%)는 항목이 높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의욕이 낮으며 울화통이 나서 물건을 부순다(17.6% 1986년에는 13.8%), 마구 때려주고 싶다(46.0% 1986년에는 없었던 항목임), 거짓말을 한다(36.7% 1986년에는 없었던 항목임)는 항목도 높아 건설적인 방향보다는 비건설적인 방향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정신적인 면과 행동면에서 이상을 보이는 율은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 월등 높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아동들은 편식(40.4%), 두통(29.6%), 식욕부진(25.4%), 피로감(23.9%), 복통(23.5%)등의 순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신체증상을 보이는 율 역시 매맞는 아동들이 안맞는 아동보다 차이나게 높게 나왔으며,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아동들이 경하게 매맞는 집단의 아동보다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율도 높았으며 신체 증상을 두 개 이상 호소하는 경우도 더 많았다. 1986년 조사에서도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매맞은 아동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말을 더듬는 것과 야뇨증으로 나왔는데 1986년 조사에서는 야뇨증만으로 나왔었다.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아동이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은 율을 보였던 증상들은 소변을 자주 봄(16.8%), 사지가 저림(21.2%), 식욕 부진(36.4%), 편식(50.0%), 야뇨증(4.8%), 말을 더듬는다(11.2), 잠이 안 온다(28.0%)와 같은 증상들이었다. 1986년 조사에서는 말을 더듬는 증상만 제외하고 모든 증상들이, 즉 두통(23.4%), 복통(11.7%), 숨이 참(6.4%), 피로감(6.4%), 과식(17.0%), 정신이 늘 흐림(9.6%)과 같은 증상까지 포함하여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아동들에게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 5. 가정 폭력(표 10)

1) 가족 중에 또 누가 매를 맞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아동만 매맞는 경우가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12.0%(1986년에는 14.9%)였으나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22.1%(1986년에는 10.6%)로 아동이외 다른 가족이 구타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다른 가족도 매맞고 있는 경우가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88.0%(1986년에는 75.5%),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77.9%(1986년에는 80.2%) 그리고 구타당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26.3%(1986년에는 24.4%)였다.

2) 실제로 매맞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알아본 결과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합계는 101.6%(1986년에는 93.7%)였고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은 84.2%(1986년에는 80.2%) 그리고 구타당하지 않은 집

표 10. Pattern of family violence other than child battering(%)

Characteristics	Severely battered (n=250)	Intermediate n=760	Unbattered (n=38)	Total sample (n=1,048)	Significance
1. The battered other than respondent	88.0	77.9	26.3	78.4	
Father	6.0	2.8	2.6	3.5	n.s.
Mother	10.4	3.6	0.0	5.1	p<.001
Grandfather	0.4	0.1	0.0	0.2	n.s.
Grandmother	1.2	0.0	0.0	0.3	n.s.
Siblings ; elder	39.2	45.3	18.4	42.8	p<.05
Younger	37.2	28.8	7.9	30.1	p<.005
Elder & younger	4.4	2.9	0.0	3.1	n.s.
The other	2.8	0.7	0.0	1.1	p<.01
Total	101.6	84.2	28.9	86.2	
2. Perpetrator of the family					
Both parents	26.0	19.1	5.3	20.2	p<.05
Father	8.8	11.1	5.3	10.3	p<.001
Mother	37.2	35.1	13.2	34.8	n.s.
Grandfather	0.8	0.4	0.0	0.5	n.s.
Grandmother	2.4	1.3	0.0	1.5	n.s.
Siblings	1.6	0.8	0.0	1.0	n.s.
Respondent	3.2	1.4	0.0	1.8	n.s.
The others	0.4	0.9	0.0	0.8	n.s.
Total	80.4	70.1	23.8	70.9	
3. Both parents battered respondent & the other family	69.2	61.4	0.0	61.1	

단은 28.9%(1986년에는 24.4%)로 나와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본인 이외에 다른 가족이 1명 이상 매맞고 있는 경우가 다른 집단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 대상 아동 이외에 매맞는 가족은 형제 자매인 경우가 76.0%(1986년에는 5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어머니 5.1%(1986년에는 3.8%), 아버지 3.5%(1986년에는 1.3%)의 순이었다. 매맞는 두 집단이 안맞는 집단 보다 가정내 폭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더 높았으며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이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보다 조부모, 부모가 서로 치고 받는 부부싸움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아동 이외에 매맞는 가족이 있는 경우 구타자는 역시 어머니가 34.8%(1986년에는 16.3%)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부모 20.2%(1986년에는 8.1%), 아버지 10.3%(1986년에는 9.0%), 본인 1.8%(1986년에는 1.0%), 형제자매 1.0%(1986년에는 3.2%)의 순이었으며 매맞는 아동이 다른 가족을 때리는 경우가 구타 당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다. 아버지나 어머니중에 한 분만 구타자인 가정의 아동들보다 모두가 구타자인 가정의 아동들이, 그리고 부모가 조사대상 아동 뿐 아니라 다른 가족을 때리는 가정의 아동들이 더 심하게 매맞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86년 조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 고 찰

아동구타의 정의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씩 회초리로 멍이 들도록 매맞는 아동이 구타 아동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설문조사인가 면접조사인가 신고접수조사인가 부모, 친지, 교사, 의사 등 아동과 관계있는 어른에게 알아보았는가, 또는 어느 지역 어떤 계층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다.

즉, 조사시기, 조사대상, 조사방법에 따라 아동구타 발생률이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 1986년 11월에 김광일·고복자에 의해 실시된 국민학교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년 동안 가족에게 매맞은 일이 있는 아동은 66.2%였고, 1개월에 1~3회 매맞는 아동은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30.9% 그리고 경하게 구타당한 집단

에서는 15.6%였다.

1987년 6·7월에 국민학교 5·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정혜영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91.11%가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기간의 명시없이 매를 맞아 본 적이 있는 가만 물어), 1달에 1~2회 이상 매맞는 아동은 43.78%로 나와 기대한 대로 1달에 1~2회이상 매맞는 아동의 빈도수는 비슷하게 나왔다. 또한 신영화(1986)의 조사에서도 가벼운 신체적 학대가 일반 아동은 63.9%로 나와 1986년 김광일·고복자의 조사결과(58.0%)와 유사하게 나왔다.

본 조사에서는 소위 교육적이거나 우발적인 구타 또는 체벌을 배제하기 위해 구타의 횟수와 정도를 정했다. 즉 일년에 12회 이상 반복 구타당했을 뿐 아니라 Straus의 갈등해결 방법 등급표(Conflict Resolution Technique Scales)를 사용하여 N 이상에 해당되는 폭행 즉 발로 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 이상의 심한 정도로 가족에게 구타당한 아동을 구타아동으로 보았다.

이것은 초달은 신체적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문화의 특성에 그런대로 근사하게 접근했으며, 여러 문헌에서 제시한 아동구타 또는 신체적 학대의 정의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문헌에서 제시된 아동구타의 정의를 요약하면, 신체적 학대는 ①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며, ② 주기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완력에 의한 것으로서, ③ 그 결과가 피부 손상, 얼굴 또는 머리의 손상, 화상, 눈의 손상, 뼈의 손상, 뇌 손상, 복부 장기의 손상을 일으킬 정도이며, ④ 각 발달단계에 따라 내용이 다르나, 아동학대의 결과로 추정되는 행동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권은주, 1977; Gelles, 1973; Straus, 1979; Mayhall & Norgard, 1983; Green, 1985). 학동기아동(6~12세)의 경우에는 ① 발달이 보다 어린시절로 퇴행되고, ② 근면하게 과제를 수행하려는 시도가 결핍되어 있거나 위축되어 있고, ③ 소년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지나친 공격성과 파괴성을 보이고, ④ 극단적으로는 낙제를 할 정도로 학업의 어려움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반응이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특징적인 반응들로 평가되고 있다(Mayhall & Norgard, 1983).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의 조건들을 거의 충족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아동구타의 정의가 정립되지 않아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발생율을 아동구타의 발생율로 대신하였는데, 5년 전에 비해 거의 3배 정도 증가된 23.9%로 나왔다. 이 결과와 비교할 최근 자료가 없지만, 선행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증가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5년 전에 비해 아동구타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증가되었거나, 아동들 스스로가 자신이 매 맞았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들 스스로가 두려움없이 자신의 매 맞았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구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태도가 향상된 탓이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동구타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의 증가 원인은 반드시 연구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구타의 원인론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아동구타의 원인은 ① 부모의 성장배경과 개인적 특성 ② 구타 아동의 특성 ③ 부모 아동간의 상호작용과 가정내의 역동 ④ 환경 및 사회 경제적 요소 등의 상대적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곽영숙 홍강의, 1987).

즉 심리적으로 쉽게 자녀를 구타하는 부모, 어딘지 특별한 아동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이 아동구타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매년 아동 구타의 발생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아동구타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학대아동의 보고 건수가 급증한다고 한다(Kaplan & Pelcovitz, 1982).

또한 근대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취업여성의 증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러한 변동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를 보완하는 가족 지원체제의 불충분함은 현대 가족에서의 아동학대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신영화 1986). 술이나 약물남용 환자중 84%가 아동을 학대할 경험 있다고 했으며(Frederick & Judianne, 1982), 음주후 자녀 구타 여부에 있어서 알콜중독자의 51.46%와 정상음주가의 2%가 자녀를 구타한 적이 있다고 한다(이지숙, 1990).

정리해 보면 아동구타에 대한 인식의 향상으로 아동들의 자기보고 증가, 핵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맞벌이 부모의 증가, 술이나 기타

약물을 남용하는 부모의 증가 등이 아동구타의 발생을 증가 원인중의 하나일 수 있겠다.

선행조사나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핵가족의 아동이 대가족의 아동보다 더 매맞고 있지는 않았으나 맞벌이 부모의 자녀가 아버지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자녀보다는 더 매맞고 있었다. 맞벌이 부모는 전체적으로 1986년에는 27.6% 였는데 1991년에는 33.2%로 증가되었지만, 1986년에는 구타당하지 않는 집단이 18.1%였고 구타당하는 집단은 32% 정도 였는데 1991년에는 구타당하지 않는 집단이 31.6% 경하게 구타당하는 집단이 32.0% 그리고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이 37.2%로 나와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가 1986년보다 증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과연 5년 전보다 심하게 매맞는 아동의 수는 3배 정도 증가된 것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정도로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들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구타의 발생율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두통, 복통, 소화장애, 소화성궤양, 천식, 류머티스성 관절염, 말더듬이, 야뇨증 같은 정신신체증상을 나타내거나, 우울증, 자살행동, 공포증, 불면증, 정신병 같은 정신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등교거부, 학습지진, 공격행동, 도둑질과 같은 행동장애를 나타낼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학대받는 6~12세 아동들이 보이는 증상중에는 말을 더듬는다, 자아존중심이 낮다, 공격적이거나 위축되어 있다, 의견이 거의 없다, 싫고 좋은 것이 없다, 충동적이거나 억압적이고 자발적이지 못하다, 등이 있다고 했다(Hilberman & Munson, 1978 ; Brenner, 1984).

구타당하는 아동들의 특징적인 신체증상 중에 속하는, 말을 더듬는 것과 야뇨증, 불면증, 두통, 복통은 본 조사에서도 1986년과 1991년 공히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왔다. 또 학대받는 아동은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없으며 복잡하고 성가신 행동을 하기 싫어하여 기분이 저조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짜증을 낸다(Brenner, 1984)고 했으며, 학대받는 아동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두려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고 자기를 거의 표현하지 않는 수줍음을 보이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긴장하여 신경증 및

우울증을 나타내며 쉽게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쉽게 포기하는 위축적 영향을 보이는(Halperin, 1979)등 의욕의 저하,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신감의 저하를 보인다는 데 본조사에서도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아동들은 공부하기 싫다, 살고 싶지 않다, 즐겁지가 않다,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다는 항목들이 타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Green(1985)은 아동학대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후유증은 자아기능과 자아개념의 손실이라고 지적했으며, 황찬구(1988)는 아동구타의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구타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권자영(1991)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 집단이 문제행동 즉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정서적 불안정, 강박우울, 과잉활동, 정신병-성문제들에서 비교아동집단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공격성과 비행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과 학대받지 않은 아동간의 공격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이와같은 견해를 보이는 연구도 있지만(Elmer, 1977 ; Straker & Jacobson, 1981) 일반적으로는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받지 않은 아동보다 공격성이 더 높고 동료집단에 대한 공격행위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최화라, 1988 ; Brenner, 1977 ; Straker & Jacobson, 1981). 1986년과 1991년 본 조사에서는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아동은 자주 친구와 싸우고, 울화통이 나서 물건을 부수는 등 구타당하지 않은 집단보다 공격적이었다.

그리고 구타아동과 비행의 문제인데 가출아동집단이 일반아동집단보다 훨씬 높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김혜영, 1990) 그리고 가벼운 신체적 학대가 가출아동은 75.0% 일반아동은 63.9%로 가출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왔으며(신영화, 1986), 가출 아동의 가출동기의 25~37%가 신체적 학대로 나타나 신체적 학대와 가출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조사에서는 가출에 관한 문항은 없고 다만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기 겁난다는 문항이 있었는데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아동들이 구타당하지 않은 집단의 아동들보다 더 집에 가기 싫어하고 더 집에 가기 겁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구타아동의 가출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었다. 가출

외에 또 다른 비행을 알아보기 위해 1991년조사에는 「거짓말을 한다, 물건을 훔친다」는 항목을 첨가시켰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항목은 구타집단이 구타당하지 않은 집단보다 월등 높았으나, 물건을 훔친다는 항목은 오히려 구타당하지 않은 집단이 다소 높게 나왔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주거형태가 열악할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의 직업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간에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높을수록, 친부모보다는 계부모인 경우,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쁠 때,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할 가능성은 높게 나왔는데(김혜영, 1990 ; 정혜영, 1987 ; 황영희, 1987 ; Galdston, 1965 ; Gil, 1970 Green, 1979 ; Young, 1964), 본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황영희(1987)는 부모의 결혼 만족도와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는 관계가 없으나 부모의 건강과 신체적 학대는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조사에서는 부모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문항이 없어 그 관계는 알아볼 수 없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한 김연미(1990)의 연구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20대가 30대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수입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보다 젊은 사람들이 아동구타에 대해 더 바람직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므로 전망이 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91 MBC 청소년 백서를 보면, 우리나라 전국의 만 13~18세 남녀 1500명중 78.0%는 학생이 잘못했을 때는 매를 때려도 된다고 했고, 21.8%는 어떤 경우에서도 매를 때려서는 안된다고 나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체벌은 신체적 학대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체벌과 신체적 학대의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특히 경한 신체적 학대는 아주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아동양육 훈련법이거나 합법적인 민속치료법으로 생각하는 문화에서 아동구타와 체벌의 경계는 더욱 모호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바른 아동의 성장을 위해서는 매를 통한 훈육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많게 나와 있다(한국 갤럽조사 연구소, 1980 ; 김광자·김광일, 1985).

이럴 경우 체벌과 확대를 구별짓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김영숙의 전국 국민학교 교사 6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체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도시지역 교사 79%, 중소도시 교사 85%, 농촌지역 교사 93.8%, 21년 이상 경력교사 69%가 체벌을 사용하였으며 남교사(83%)보다 여교사(87.9%)가 약간 더 빈번하게 체벌을 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매를 맞아야 하는 아동에게 체벌의 의미는 어떠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의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을 체벌 집단으로 보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신체적 학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보여주는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발생율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왔는데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 연구되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결 론

1986년 선행조사에서와 동일한 두 학교 3·4학년을 택해 학급 수도 동일하게 선택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1991년에 재조사하여 아동 구타 발생율의 변화를 살펴 보았으며, 선행연구에서 얻어졌던 결과들과 후속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를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5년 전에 비해 매맞는 아동의 수는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나왔다.

1986년 조사에서는 「지난 일년동안 집안 식구에게 매맞은 일이 있다」고 답한 아동의 수는 1,142명 중 756명(66.2%) 이었는데 1991년 조사에선 1,048명 중 1,010명(96.4%)으로 나와 상당히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5년 전에 비해 심하게 구타당한 아동의 수, 즉, 아동 구타율은 거의 3배 정도 높게 증가된 것으로 나왔다.

한 달에 평균 1회 이상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 이상으로 심하게 매맞은 아동들을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 또는 아동 구타 집단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에 속하는 아동의 수가 1986년 조

사에서는 1,142명 중 94명(8.2%)이었으나 1991년 조사에선 1,048명 중 250명(23.9%)으로 거의 3배 정도 높게 나왔다.

3) 가정 사회 환경 요인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5년 전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

① 부유층 가정이 많은 지역보다 빈곤층 가정이 많은 지역의 아동이 심하게 구타당하는율이 높았으며, 자택에 사는 아동보다는 남의 집에 사는 아동이 아파트에 사는 아동보다는 독립주택에 사는 아동이 독립주택에 사는 아동보다는 상가에 사는 아동이 그리고 가족이 사용하는 방의 수가 세계 이상인 아동보다는 두개 이하인 아동이 더 매맞는 경향이 있었으며 더 심하게 매맞는 경향도 높았다.

② 조부모와 같이 사는 가족과 부모와만 사는 가족사이에는 구타율의 차이가 없었다.

③ 친부모와 사는 아동보다는 계부, 계모, 양부모와 사는 아동이 더 심하게 매맞았으며, 아버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는 부모가 맞벌이인 가정의 아동이, 부모가 맞벌이인 가정의 아이들보다는 부모 모두 실직인 가정의 아동들이 더 매를 맞고 더 심하게 매를 맞는 경향이 있었다.

④ 부모의 직업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가정의 아동들보다 노동과 같이 고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이 더 심하게 매를 맞고 있었다.

4) 구타 양상이나 구타 아동의 정신 증상 및 신체 증상 역시 5년 전의 결과와 동일했다.

① 구타자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의 순이었으며, 구타당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구타당한 두 집단에서 아동이외에 매맞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매맞은 아동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에서는 아동을 구타하는 구타자가 3명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아 아동구타와 가정폭력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심하게 구타당한 집단의 아동들은 일반적인 체벌 부위인 팔, 다리, 엉덩이보다 온몸, 머리, 가슴이나 배, 얼굴 등을 매맞는 경우가 많았으며 매맞은 결과도 멍드는 것 이상의 신체적 손상이 한 가지 이상 나타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아동들

때렸음을 알 수 있었다.

③ 구타와 관련되어 생길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의 호소는 구타당한 두 집단의 아동이 구타당하지 않은 집단의 아동보다 월등 많았으며, 심하게 구타당한 아동이 경하게 구타당한 아동보다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호소가 더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5년 전에 비해 매맞은 아동의 수가 증가되어 있으며 심하게 구타당한 아동의 수, 즉 아동 구타율은 3배 정도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사회·환경요인의 특징이나, 구타 양상이나 구타 아동의 정신증상 및 신체증상들은 1986년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 References

- 곽영숙·홍강의(1987) : 아동 학대 현상의 개념. 정신건강연구 6 : 37-52
- 권은주(1977) : 아동 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권자영(1991) :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광일(1985) : "구타당하는 아내" 50세의 정신의학 적 연구. 정신건강 3 : 218-234
- 김광일·김광자(1985) :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 조사. 정신건강연구 3 : 218-234
- 김광일(1989) : 아동 학대의 현황과 전망. 아동학대 pp61-69
- 김광일·고복자(1987) : 아동 구타의 발생을 조사. 정신건강연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6 : 66-81
- 김미경(1987) : 아동 학대와 방임. 아동 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서울 특별 시립 아동 상담소 14 : 32-72
- 김연미(1990) : 아동 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숙(1988) : 아동 체벌에 관한 연구. 아동 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서울 특별 시립 아동 상담소 15 : 7-31
- 김정준(1987) :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혜영(1990) : 아동 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가출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비교.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남기민·전영자(1990) : 아동 학대의 원인과 대책
- 노치영(1988) :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 문화방송(1991) : '91 MBC 청소년 백서. 문화방송 pp. 75-76
- 박태영(1989) :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배광웅(1989) :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심리와 가족역동성에 관한 사례연구. 아동학대,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pp. 213-229
- 백영석(1989) :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일례. 아동학대,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pp. 209-212
- 변화순(1989) : 영세지역 취업모의 자녀방치와 대책. 아동학대,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pp. 138-158
- 성민선(1979) : 아동학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동복지 pp. 25 : 7-13
- 소숙희(1990) :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성심 여자 대학원
- 신영화(1986) :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정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안동현·홍강의(1987) :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현황-병원상황에서-정신건강 연구. 한양대학교 정신 건강연구소 6 : 53-65
- 오창규·이명숙·박태규 등(1975) : Battered child syndrome의 1예. 중앙의학 28 : 185-187
- 유춘식(1987) : 아동권의 보호신고소를 중심으로 한 아동 학대 현황.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서울시립아동상담소 14 : 7-36
- 유효숙(1977) : 아동학대에 대한 문헌적 고찰-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연구 노트. 행동과학연구소
- 윤영숙(1989) :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전달체계-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아동학대,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255-276
- 이배근(1989) : 대만, 홍콩, 및 동남아시아의 아동 학대 프로그램. 아동학대, 한국 아동학대 예방 협회 pp. 277-289
- 이소희(1989) :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 환경 분석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길홍·이영식(1989) : 신문에 게재된 소아 성폭력 사례에 관한 내용 분석. 아동학대,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pp. 159-170
- 이지숙(1990) : 알콜중독자와 그 자녀의 성격 유사도 및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 석사학위논문,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미도(1986) : 아동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전금중(1991) : 한국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 대학원.
- 전행조 · 송영명 · 심미자 등(1979) : 피학 아동 증후군 1예. 소아과 22 : 61-67
- 정길홍(1989) : 일본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아동학대, 한국 아동학대 예방협회 pp. 290-310
- 장철희(1982) : 아동학대의 증가현상과 그 예방책.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 9 : 21-44
- 정혜영(1987) : 매맞는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 한국 어린이 보호회.
- 주영희(1984) :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조사연구. 사회복지 80 : 71-133
- 최윤라(1988) :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0) :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제 1권. 서울,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
- 황찬구(1988) : 아동구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
- 황영희(1987) : 결혼 만족도와 아동학대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허남순(1992) :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 아동복지의 새로운 방향, 한국 아동 복지 학회.
- 홍강의(1989) : 아동 구타의 대책과 예방. 정신건강 연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6 : 82-93
- 홍강의 · 장경준 · 문형로 · 안동현 · 손세정 · 박순미 (1989) : 18개월 여아에서의 아동 학대.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pp. 173-183
- Brenner A(1984) :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Lexington, Mass. DC Heath and Company.
- Elmer E(1977) : A follow-up study of traumatized children. pediatrics Vol. 59, pp. 273
- Erikson E(1950) :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rederick S, Cdhen & Judianne Desen-Gerber JD(1982)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 Drug Addiction in 178 Patients : Preliminary Results. Child Abuse & Neglect, Pergamon Press Vol. 6 pp. 383-387
- Galdston R(1965) : Observations on children who have been physically abused by their parents. Am J Psychiat 122 : 440-443
- Gayford JJ(1975) : Research on battered wives. Roy, Soc, Health J 95 : 288-289
- Gelles RJ(1973) : Child abuse as psychopathology : A sociological critique & reformulation. Amer J Orthopsychiatry 43 : 616
- Gil DG(1970) : Violence against children : Physical Child Abuse in the United States, Cambrid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 AH(1985) : Child abuse and neglect. The Clinical Guide to Child Psychiatry, Edited by Shaffer, D Ehrhardt AA, and Greenhill, LL. New York, the Free Press.
- Halperin M(1979) : Helping Maltreated Children : School & Cmmunity Involvement
- Hilberman E & Munson K(1978) : Sixty battered woman. Victimology 2 : 460-470
- Kaplan SJ & Pelcovitz D(1982) : Child abuse and neglect and sexual abuse. Psychiat Clin North Am 5 : 321-331
- Kinard EM(1982) : Experiencing Child Abuse : Effect on Emotional Adjustment. Am J Orthopsychiatry
- Mayhall PD & Norgard KE(1983) : Child Abuse and Neglect : Sharing Responsibi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Mrazek D & Mrazek P(1985) : Child maltreatment.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nd edition, edited by Rutter, M & Hersov L. New York, Mlade-well Scientific Publications.
- Straker G & Jacobson RS(1981) : Aggression, Emotional maladjustment and empathy in the abused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 726-765
- Straus MA(1974) : Leveling, Civility and Violence in the family. J Marriage & Family 36 : 13-29
- Straus MA(1978) : Wife beating : How common & why? Victimology : An Internat. J 2 : 443-458
- Straus MA & Gelles RJ & Steimetz SK(1979) : Behind closed doors :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arden City NY Doubleday/Ancher



AN INCIDENCE SURVEY OF BATTERED CHILD IN THE TWO  
ELEMENTARY SCHOOLS OF SEOUL  
— A FOLLOW-UP STUDY IN 5 YEARS —

Bock-Ja Ko, M.D., Ph.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chool Health Center Hospital*

The author compared the follow-up study in 1991 with the previous study conducted in 1986 as same method and sample population selected from same schools as the previous study.

Twenty classes of 3rd and 4th grade of two elementary schools in Seoul were selected as sample population. One of the two schools was located in the area of lower social class, and the other in the area of higher social class. The total sample was 1,142 in 1986 and 1,048 in 1991.

According to the severity and the frequency of being battered among the sampled ones during the last one year, three groups were purposefully identified : The unbattered, the intermediate and the seriously battered. The seriously battered was defined as the severity of battering more serious than N degree owing to Straus'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 Scale with the frequency of 12 or more episodes for one year. The rest of being battered were classified into the intermediate group. Surprisingly the incidence rate of the seriously battered, was increased about 3 times more than previous study.

Except incidence rate, the results were same or similar as previous one. The experience of being battered was more serious as previous study in the lower social strata, under the poor living and housing condition, in the broken family such as step parents or absence of parents and with the parent of unemployed. Also the child battering was evaluated to be closely related to all the other forms of family violence. And psychosomatic,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manifestations were markedly serious in the seriously battered group.

The drastic increase of incidence rate of battered child should be analyzed in various aspects : one of them might be derived from the improvement of social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toward the battered child.

**KEY WORDS :** Battered child · Incidence.